

자신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길



성 소 윤

- 부산 국제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4년 재학 중
- 2021년도 5급 공채 국제통상직 수석합격

I. 들어가며

안녕하십니까, 2021년 5급 공채 국제통상직렬(선택과목: 경제학)에 최종합격한 성소윤입니다. 운 좋게도 수석으로 합격하여 합격수기를 쓰게 되었는데, 햇수로 약 4년간 공부하며 이런저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사람으로서 저의 공부방법이 마냥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아니며, 합격자 100명이 모인다면 공부방법이 100가지라고 할 만큼 저마다 적합한 공부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의 수기는 참고로만 봐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II. 과목별 수험공부방법

1. 1차시험

(1) 헌법

2018년과 2019년에는 300페이지 정도 되는 기출문제집을 하나 구매해서 매일 일정량을 정해서 풀고 그때그때 궁금했던 관련 조문을 찾아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공부했을 때 매번 헌법을 통과하기는 했지만, 헌법을 푼 후에 PSAT을 풀 때 불안한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시험을 준비할 때에는 김유향 선생님의 핵심강의를 수강했는데, 제가 기본강의는 수강한 적이 없어 비교를 하기 어렵지만 어느 정도 베

이스가 있다면 핵심강의만 수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8급, 국가직 7급, 지역직 7급, 5급 기출문제를 적어도 5개년은 풀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는 기출문제 선지에 더하여 최신판례에서 뽑아 만든 선지를 섞어 출제하기 때문에 당해 시험을 대비하기에 좋습니다. 헌법 조문도 은근히 출제가 많이 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조문에 빈칸을 뚫어서 작성하는 스터디를 짚막하게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최신판례도 중요한 것 위주로라도 한 번 공부하는 것이 좋고, 대부분 정족수나 헌정사는 한 문제 버린다고 생각하고 공부하지 않는데 저는 오히려 한 문제를 확실히 얻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시험 당일 아침에는 정족수와 헌정사를 외었습니다. 또, 기출문제집에 헛갈렸던 선지에 포스트잇으로 표시를 해두고 시험 직전에 가볍게 보기도 했습니다.

(2) PSAT

진입 당시(2018년) 평균 85점으로 고득점하였는데(합격선 71.66), 이때 기출 몇 개년 푸는 것 외에는 헌법공부에 집중하였기에 그 이후로도 이런 점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따로 강의를 듣거나 스터디를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합격선과 2문제~6문제 차이로 합격하였기에 제가 PSAT형 인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저의 공부방법은 PSAT 공부에 최소한의 시간만을 투자하고 싶은 수험생들께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PSAT 기간에 강의를 듣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

한 것은 시험 당일의 컨디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시험 당일에 최상의 신체적, 정신적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히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판단하고, 그에 맞추어 공부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 PSAT 한 세트를 이틀 연달아 풀면 둘째날 제대로 집중하지 못해 낮은 점수가 나오곤 했기에 마지막 주에는 일, 화, 목에 기출문제를 한 세트씩 풀고 월, 수, 금에는 헌법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자면, 우선 언어논리와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듯 언어논리 시험이 2019년부터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논리퀴즈보다 독해 난이도가 이전에 비해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평소 논리퀴즈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통상적인 풀이 순서인 독해→논리퀴즈 대신 논리퀴즈→독해 순서로 푸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자료해석의 경우 저는 항상 60점대~70점대의 점수대를 유지하였기에 저의 공부방법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위 합격생들의 공부방법을 참고하고, 제가 그나마 점수를 높게 받았던 해의 공부방법을 생각해보면, PSAT 기간에 문제를 많이 풀어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료해석 문제에 익숙해지고 단순 계산을 빠르게 하는 습관이 들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열었던 자료해석 특강을 잠시 들은 적 있는데, 문제 유형별로 자주 나오는 함정이나 쉽게 푸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합격생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료해석이 훈련을 통해 가장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 하니 강의도 열심히 듣고 비타민과 같은 계산 교재도 꾸준히 풀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상황판단의 경우

제가 가장 좋아하던 과목이었는데, 특히 해를 거듭하면서 행정법과 헌법 공부를 함에 따라 법조문 문제는 점점 쉽게 풀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상황판단의 겨우 문제를 많이 접해볼수록 사고체계가 확장되고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이 생기기 때문에 모강 기출을 불문하고 많이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문제를 많이 풀수록 자신이 어떤 유형에 약한지 파악하기 쉬워지므로 실전에서 더 유리해질 것입니다. 저의 경우 스포츠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건너뛰곤 했습니다.

끝으로, PSAT에 있어서 모의고사 점수에는 정말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전국모의고사에 자주 응시하곤 했었는데, 대부분 1~3등 안에 들긴 했으나 국제통상직렬로 모의고사 응시하는 사람이 대부분 10명대였기에 이 등수는 무의미했고, 상황판단이 55점 나오기도 하고 언어논리가 60점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이는 실전 점수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모의고사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많이 풀 것을 권고합니다.

2. 제2차시험

저는 제2차시험 과목 중 엄청나게 뛰어난 점수를 받은 과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낮은 점수를 받은 과목 역시 없기에,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격자들 중에는 전략과목을 확실하게 세워 그 과목 덕분에 합격한 분들도 많으니, 자신에게 어떤 전략이 맞는지 생각해 보시고 목표점수를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 올해 목표점수는 경제학 35점, 국제경제학 70점, 국제법 65점, 행정법

50점, 영어 65점 였고, 결과적으로 모든 과목에서 목표점수와 유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경제학

제2외국어 과목들에 비해 경제학이 공부량이 많다는 것이 단점이지만, 국제경제학과의 시너지 효과는 확실히 부정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특히나 올해처럼 국제경제학에서 경제학 베이스를 요구하는 경우 경제학 선택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2차시험에 합격한 12명 중 6명이 경제학 선택자였습니다. 경제학이 50점짜리 선택과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는 없지만, 경제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상 답만 맞으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획득해갈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답안 형식의 공부보다는 정답 도출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답안 작성을 게을리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프 오른쪽에 설명을 붙이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프를 중앙에 둘 것, 문제점은 따로 쓰지 않을 것 등 자신이 답안을 쓰는 기본적인 체계는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래 거시경제학은 대부분 30점짜리 문제로 출제되었기에 저는 20점짜리 국제경제학 문제를 완벽하게 풀고 50점짜리 미시경제학을 최대한 풀어서 경제학을 방어하려는 전략을 세워서 공부했습니다. 또한 저는 2018년에 진입하여 2018년과 2020년 2학기에는 학교에 복학하였는데, 이때 들은 경제학 전공과목들이 경제학 문제를 푸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각론 부분에 있어서는 학원 강의보다 학교 강의가 더 상세하고 깊게 배울 수 있기도 하기 때문에, 경제학 과목을 학교에서 접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복학할 때 경제학 수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 국제경제학

국제경제학의 공부량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학에 비해서는 부담이 훨씬 적어 수험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행복하게 공부했던 과목이었고 부담도 가장 덜했습니다. 기출문제와 황종후 선생님의 연습책을 제외하고는 문제도 많이 풀지 않았고, 외워야 할 모형도 많지 않아 간간히 복습만 해주었습니다. 다만 국제금융론 후반부의 통화론자 모형이나 포트폴리오 모형은 생소한 개념이고 내용도 까다로워서 시험이 다가왔을 때쯤에 두세 번 반복해서 공부하고 외웠는데, 일명 ‘불의 타’(잘 나오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는 문제)라고 불리는 부분들은 포스트잇으로 표시해두고 시험 직전에 마지막으로 외웠습니다. 국제경제학 기출문제를 보면 2016년 제3문과 같이 계산이 까다로운 문제도 있었고, 2017년 제1문과 같이 아예 처음 보는 모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경제학은 무난하게 나오는 경향이어서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는데 올해는 생산함수와 로그 형태로 된 효용함수를 이용한 무역형태를 도출하라는 문제와, 시점 간 효용함수를 통해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도출하는 문제가 합 80점으로 저를 비롯한 많은 수험생들이 당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전 기출에도 생산함수와 효용함수를 이용하는 문제나 죄수의 딜레마 문제 등 경제학을 따로 공부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가끔 나오곤 했었는데, 올해와 같은 경우를 대비하려면 경제학 선택자가 아니더라도 경제학, 특히 미시경제학 1순환 정도는 수강하는 것이 필수가 된 듯합

니다. 로그함수 미분이나 MRS, 시점 간 효용함수 모두 미시경제학에서 나오는 개념이니 따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3) 국제법

진입할 당시에 무턱대고 「국제법론」을 읽었는데, 제대로 이해되지는 않고 국제법이라는 과목에 대한 공포심만 커졌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저런 자료들과 수업들로 국제법 기초를 다지고 다시 읽으니 이전보다는 쉽게 읽혔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이 시험에 있어서는 굳이 「국제법론」 전체를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신국제법강의」를 읽으면서 보충자료로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독하면 보다 풍부한 답안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법은 행정법과 달리 시험장에서 조약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조문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조문만 암기한다고 해서 답안을 완벽히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문 암기를 따로 하면 문제에 접근할 때 보다 심적 안정감을 가진 채로 답안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교과서만 읽는다면 교과서에서 강조하는 조항만 암기하지만, 그 조약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암기가 되어 있다면 자신이 답안지에 언급한 조항들이 해당 부분의 전부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조약을 따로 암기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답안 틀을 잡을 때에도, 답안을 쓸 때에도 훨씬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판례도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있는 그대로 해당 쟁점에서 언급된 판례의 특정 부분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판례별로도 공부하여 어떤 판례에서 어떤 쟁점이 있는지 공부하는 것도 효과적이고 머릿속에서 헛갈리지 않게 정리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경제법의 경우 일반국제법에 비해 강의도 적고 자료도 찾기가 어려워서 양에 비해 시간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신국제경제법」, disputecase.kr의 판례 내용, 이종훈 선생님의 국제경제법 자료, 이만복 선생님의 국제경제법 교재, 그리고 예전 합격자분이 배포한 서브노트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공부하였습니다.

(4) 행정법

행정법에 한해서는 암기가 선행되고 이해가 후행되었습니다. 핸드북 전체를 한 번 암기하고 나서야 판례의 판결요지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법에 있어 암기스터디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3순환 기간에는 하루에 5개 정도의 쟁점을 암기하고 모여서 제비뽑기로 3개의 쟁점을 골라 30분간 외운 내용을 작성하고 돌려보는 형식의 암기스터디에 참여했고, 2021년 3순환 기간에는 자율적으로 3개의 쟁점을 외워 백지에 작성한 것을 하루에 한 번 업로드하는 비대면 스터디에 참여하였습니다. 행정법이 가장 부진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답안 작성을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쟁점의 경우 나중에는 문제만 봐도 자동으로 제가 쓸 내용이 떠오르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목차 잡는 것 역시 중요한데, 이것 역시 답안을 많이 써볼수록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답안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저는 무조건 사안 포섭하기에 유리한 학설을 취하곤 했는데, 보통 뒤따르는 설문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문제에서 풍기는 뉘앙스를 반영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다수설과 판례가 일치하기 때문에 그대로 포섭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행정법을

잘 하는 지인에게 10~15번에 걸쳐 행정법 답안지 첨삭을 받았는데, 이 역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기에 기회가 된다면 합격자에게 첨삭을 받아볼 것을 적극 권합니다.

(5) 영어

영어는 한-영 번역(제1문), 영-한 번역(제2문), 에세이(제3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한 경험은 없으나 평소 영어 실력에 있어 거주하고 온 친구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편은 아니었고, 영어보다는 다른 과목 점수를 올리는 것이 더 시급하고 또 더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 하에 영어는 다른 국제통상직 수험생들과 스터디를 통해 감을 유지하는 데에 집중을 했고 수업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점수를 향상시킨 사람들도 많이 보았기에 영어를 전략과목으로 두고자 한다면 수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2학기과 2020년 상반기에는 기출스터디를 진행했고, 2021년에는 기출을 다시 보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4명에서 스터디를 꾸려 직접 문제를 만들어 풀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데에 짧으면 1-2시간, 길면 3~4시간이 걸렸지만, 문제를 만들면서도 많은 공부가 되기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문제를 직접 만들어 푸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영 번역은 특정 분야(행정학, 경제학, 심리학, 생물학 등)에 대한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저는 주로 교양서적(마이클 샌델 저 「정의란 무엇인가」 등) 중 한글번역본이 있는 책에서 발췌하여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영-한 번역은 칸아카데미 SAT 지문을 많이 사용했고, 에세이 지문은 Project Syndicate에서 주로 발췌하여 사용했습니다. 평소 번역할 때에 저는 문장의

매끄러움보다는 단어가 더 문제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해커스 텀스 기출 보카」라는 책을 추천받아 식사시간이나 자기 전, 혹은 차 안에서 단어를 외웠습니다. 영어는 국제통상직만 치는 과목이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듣거나 스터디를 하는 것이 감을 유지하는 데에도, 답안의 방향성을 구축하는 데에도 좋을 것입니다.

3. 제3차시험

제3차시험은 제2차시험 합격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도 작년에 이어 집단토의가 빠졌기 때문에 직무역량과 공직가치만 준비하면 되었습니다. 다만 그 준비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게 되는데, 이걸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통상직은 매년 모든 2차 합격생들이 모여 다 같이 스터디를 합니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스터디가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고, 대면인 경우에도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고 3~4명씩 팀을 나누어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국제통상직의 경우 매년 산업통상자원부는 고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원부처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생각하고 면접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무역과 통상 관련된 정책은 꼼꼼히 읽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직무역량면접과 공직가치면접 모두 일찍 끝나 추가질문으로 통상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 “현재 세계 통상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응하여 한국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설명하라”, “자신이 평소에 갈등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이를 통상직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

라”, “자신이 생각하기에 한국이 체결한 FTA 중 가장 성공적인 FTA와 가장 아쉬운 FTA에 대해 말해보라.” 등 까다로운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이 외에도 자신이 희망하는 부서를 자세히 정하고 가면 좋습니다. 저의 경우 무역투자실의 무역정책관을 생각하고 들어갔으나 이에 관련된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또 정부부처의 이름을 최대한 외우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 직무역량 면접에서는 자신이 A부 사무관이라는 상황을 준 뒤, 제부와 B처를 비롯한 여러 개의 부처에서 중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시되었는데, 제가 A부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면접관님께서 A부가 어디고, 왜 A부처를 중심으로 통합해야 하나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매년 면접장 분위기는 다르다고 하지만, 5급공채 면접은 수험생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합격시켜 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가면 무난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스터디를 통해서도 많이 배워갈 수 있고, 매년 유예생 분들과 현직자 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III. 기타

1. 필기구 관련

공부하던 당시 주위 수험생들을 살펴보면, 경제학은 제트스트림 1.0, 논문과목은 에너겔 0.7을 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글씨는 매우 가독성이 좋은 편이었으나 펜 쥐는 습관이 좋지 못해 제트스트림과 같은 볼펜으로는 네다섯 장만 써도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과목은 에너겔

0.7을 사용했으나 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은 Q노크 0.5를 사용하였는데, Q노크가 제가 써본 잉크펜 중 가장 빠르게 말라서 경제학 자를 사용할 때에도 한 번도 번진 적이 없어 저와 같이 필압이 강한 분들께 추천하는 바입니다.

2. 건강관리

2020년, 국제법 서브노트를 만들겠다고 100장이 넘는 타이핑을 했었는데, 저는 오른손잡이였으나 타이핑을 하면서 왼손에 오른손과 같은 정도의 무리가 왔는지 제2차시험 치기 2~3주 전 건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오른손잡이여서 제2차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왼쪽 팔목에 파스를 붙이며 버텼으나 결과적으로 2020년 하반기 내내 정형외과를 다니며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고 주사도 여러 번 맞았습니다. 건초염은 고시생들 사이에서는 흔한 질병이긴 하지만 잘못 관리하면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기니 방치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병원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다행히 허리가 튼튼한 편이었지만, 주위 수험생들 중 절반 이상이 허리 통증을 호

소하였습니다. 당장 시험공부가 급할 순 있지만, 차라리 공부시간을 줄이더라도 하루 30분이라도 뛰거나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시는 장기전이며, 지금 건강을 챙기지 않았다가는 후에 병을 키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IV. 나가는 글

저는 최종합격할 올해까지도 뛰어난 학생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세운 계획은 성공한 날들보다 실패한 날들이 월등히 많았고, 아침 9시 이전에 일어난 날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 자세로는 붙지 못할 거란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최고답안은 근처에도 가본 적 없고, 학교 모강에서는 과락을 받은 적도 많으며, 답안 첨삭을 받을 때에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혼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자신만의 페이스이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간에 결과적으로 자신의 실력이 향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자신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길 바랍니다.